

OPINION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아침세평

김명화

교육학박사



‘아이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강남 엄마’라는 책은 초등 교육, 영어, 독서, 방학 생활을 어떻게 선택하고 보낼 것인가? 강남에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가 쓴 책으로 벌써 20년이 다 돼 간다.

그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했을까? 옛 말에 자식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투자 대비를 생각하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역할을 담당하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강남 대치동은 학부모의 교육열이 높았던 곳으로 학원기를 형성하면서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지역이다.

이에 대학에서 교육 사회학을 가르치면서 학군과 집값의 상승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발표하도록 추천했던 책이었다.

최근 개그맨 이수지가 패러디한 유튜브를 보면 ‘대치동 도치맘’은 교육열이 높고 허세 부리는 강남 엄마의 현실을 패러디한 영상은 심란한 국정 상황에도 폭발적인 조회수로 관심도가 높았다.

이 영상을 보면서 20년 전에 ‘아이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강남 엄마’라는 책이 생각났다. 돼지엄마, 튜터, 스카이 캐슬, 라이딩 인생 등 핫한 스토리를 모은 강남 엄마의 20년이 지나도 우리 사회의 학벌 위주의 삶을 보여준다.

이수지의 패러디 영상을 보면,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도치맘을 넘어 대치맘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차에서 김밥으로 대충 점심을 먹고, 영어를 섞어 대화하며 우아한 척한다.

하지만 현실은 고달픈 대치동 엄마의 단면을 보여준다. 대치 맘은 영어 학원에서 아이가 대변을 가했다는 소식에 감탄하면서 태소변을 가리지 않아 대변 훈련 선생님을 모시려 했다는 대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폭소를 터뜨리게 한다.

또 어린아이를 수학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아이의 질문이 수학적 영재성이 보였다는 것이다.

제일 가관인 것은 기생충 영화의 흥행으로 미국 브로드웨이를 가기 위해 제기차기 과외를 위해 정학동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유학한 전봉룡이 강사와의 미팅은 포복절도하게 한다.

도치맘은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는 뜻이다. 이 패러디 영상은 대치맘의 일상을 과대 포장했지만, 우리나라의 강남 대치동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대단하다. 15년 전 입소문에 미국에 가서 학원을 만드는 엄마가 대한민국 엄마인 것이 과한 교육열을 보여주고 단편적인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학부모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재능이라고 하지만, 강남 대치동은 지역적인 교육 열풍은 독특한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는 강남 엄마들의 옷차림과 패션은 우리 사회의 이질감, 공동체에서 소외감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이번 패러디한 영상에서도 몽클레어를 입은 대치동 엄마의 댓글에 ‘몽클레어가 당근에 많이 나왔어’, ‘프랑스 유명한 브랜드를 한 방에 날려버린’ 이수지의 유튜브 댓글

글을 보면서 씩씩한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열정적인 엄마의 양상은 다양하다.

건축처럼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아츠테크 키즈맘. 아이의 앞길을 닦아주는 컬링 운동을 패러디한 스윙맘. 아이 앞길을 모두 닦아주겠다는 잔디깎기 맘. 위에서 아이를 감시하는 헬리콥터 맘. 자식을 다이어트 시키는 아몬드맘 등 시대에 따라 다양한 엄마가 등장했다.

최근에 등장한 라이딩 맘은 7세 고시, 과열되는 사기 교육은 유치원부터 입시 전쟁 속으로 뛰어드는 대치동 학부모의 사회적 현상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기 쉽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결혼,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학기다. 신학기에는 학부모의 분주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시기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에 입고 갈 옷 준비하기. 가방은 어떤 것을 사줘야 할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가야 우리 아이 기죽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 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내 아이만 생각하는 학부모로 인해 사회적 여파는 크다. 급속같은 내 새끼를 위해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다.

이수지가 패러디한 시대적 풍자를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강남의 신화는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부모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 고민을 할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아츠테크 키즈맘, 스윙맘, 잔디깎기맘, 헬리콥터맘, 아몬드맘, 라이딩맘 중에 “나는 어떤 부모인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기고

윤은숙

광주시교육청시민협력지원센터 지역교육협력과장



아침 엘리베이터 안에서 쌍둥이 여아 유치원생을 종종 만난다. 젊은 엄마가 항상 딸들의 머리를 예쁘게 빗어 참 바지런하다는 느낌이 든다.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다르게 보인다고 했더니 1분 먼저 태어난 아이가 언니여서 그런지 더 차분하단다. 나에게 항상 공금증을 표시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는 동생, 엄마 뒤에서 부끄러운 듯 미소만 짓고 있는 아이는 언니란다. 얼굴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표정으로, 행동으로 구분한다. 참 신기하다.

또 젊은 아빠가 아침 육아를 맡아 하는 듯, 매일 영아를 버스에서 태워 보내는데 만나면 꼭 인사를 시킨다. 아이는 부끄러운 듯 아빠가 몇 번 시켜야만 인사를 마지못해서 한다. 몇 번 그 상황을 겪어서 내가 먼저 인사해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려버린다. 어느 날은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기분이 좋은지 바로 반응한다. 그 이후 종종 만나면 하이파이브로 아침 인사를 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개성이 각자 다른데, 어른들의 기준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나무랄 일이 아니다. 또 다른 인

늘봄의 성장을 기대하며

사범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늘봄학교 업무를 맡으니 육아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한다. 아이마다 다른 개성을 찾고 맞춤형 교육을 꿈꿔본다.

최효미(2021)의 육아정책 연구 조사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평균 순수 양육비만 영유아 월 64만4000원, 연간 약 773만원, 성인이 될 때까지 23년간 약 4억2000만원이 든다고 한다.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광주시 초·중·고 사교육비 평균은 약 41만3000원이다.

늘봄학교는 이러한 양육과 사교육비의 부담도 덜고 학부모들의 사회적 참여와 성취에 도움이 되고자 출범했다.

광주시교육청시민협력지원센터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지난해부터 늘봄 업무를 시작하면서 공간, 인력, 프로그램, 역할 분담 등 여러 걱정이 많았지만 학교, 학부모, 민간 예술단체, 지역 관공서, 지구대 등 많은 기관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다양한 늘봄 정책의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는 온(溫)마을다(多)부터(99%), 1·2학년 돌봄교실 학생 만족도(97.7%), 학부모 사회활동 참여 도움 만족도(97.0%), 돌봄교실 자녀 정서적 안정, 발달 도움 만족도(94.2%), 사교육비 경감 도움 만족도(88.5%)로 나타났다.

다. 특히 30개소의 지역연계형 온(溫)마을다(多)부터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민간,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기들의 도움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온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실감나게 한 사례였다.

그리고 학교 내의 돌봄교실 운영 중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학생관리 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실 환경 등 급간식 서비스 순이었다.

2025년 3월부터 전면 확대된 늘봄학교는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초등학교 1학년은 연간 72만원 자유수강권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시민협력지원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늘봄거점늘봄센터가 4월 개관한다. 효동초등학교 별관 모듈 교실에서 토, 일에만 긴급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돌봄을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늘봄의 확장과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실례이 마래다. 미래는 늘~봄으로 큰, 우리 아이들의 큰 세상이다. 2025년 광주 늘봄 교육정책도 늘~봄을 기대해 본다.

독자투고

음주운전, 단일한 생각서 시작

“음주운전 절대 안돼요”라는 말은 수천번 언급해도 부족하다.

미발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는 중범죄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술 한잔 정도 마시고 운전은 괜찮겠지?”라는 단일한 생각에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찰은 해마다 수시로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나 길목에서 음주운전 예방캠페인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등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특정 시기 혹은 불시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인식시키며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음주운전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가 필히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의 술집을 기용하고 운전하는 단일한 생각을 넘어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안녕을 위해서는 중범죄임을 명심하고 시민과 경찰이 하나돼 협력해야만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이다.

백승민 여수경찰 분산파출소 경장

취재수첩

도시의 질병 ‘빈집’ 대책은

송대웅

경제부 차장



(54.0호)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염성’ 때문이다.

처음에는 한, 두호에 불과한 빈집. 그러나 차츰 그 수가 늘게되고 결국에는 동네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참다 못한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면 또 다시 빈집이 생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웃나라이자 전 세계적으로 빈집 문제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부터 특별조치법까지 만들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2000년대 중반부터 확산된 ‘빈집 은행’ 제도도 있다. 지자체들이 빈집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거나 매매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없다면 지역 사회는 계속해 슬럼화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

전남도와 시·군 온라인 쇼핑몰 순항하길

전남도와 도내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다.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매출이 매년 성장세를 보이며 지역 농수축어가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각종 기획전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안정적 판로 확보는 물론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도.

19일 현재 전남도와 도내 시·군이 직영·위탁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은 총 17개다.

남도장터(전남도), 나주물(나주), 곡성품(곡성), 담양장터(담양), 고흥품(고흥), 보성품(보성), 화순품(화순), 장흥품(장흥), 초록민음·강진쌀(강진), 해남미소(해남), 영암물(영암), 함평천지품(함평), 장성품(장성), 완도청정마켓(완도), 진도아리랑물(진도), 신안1004물(신안) 등이다. 이들은 예전에는 지역 생산품의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할인전 등을 선보이며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가 운영하는 ‘남도장터’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 1월 30일까지 설 명절 기획전을 펼쳐 10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설 대비 20%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도내 22개 시·군의 추천을 받은 상품성이 뛰어난 농수축산물들만 판매한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라이브 커머스 등을 실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매출이 2023년 556억원에서 지난해 600억원으로 뛰었다.

해남군 직영 ‘해남미소’도 ‘해남매추로 감장합시다’, ‘매월 1. 2. 3일은 쌀 사는 날’ 등 다양한 기획전을 펼쳐 매출이 2023년 237억원에서 지난해 241억원으로 상승했으며 화순군 직영 화순팍도 회원가입부터 상품 주문까지 전화 1통으로 가능한 ‘주문 간소화’전략을 실시, 매출을 2023년 16억원에서 지난해 36억 7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현재 이들 쇼핑몰에는 4112곳의 입점 업체와 4만4551개의 판매 품목, 총성도 높은 회원 수 109만여 명이 있다. 이들이 거둔 2023년 매출은 995억6100만원이며 지난해에는 1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농수축어가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이들 쇼핑몰들의 순항을 기대한다.

경제 취약 1인 가구 급증…대책 서둘러야

광주·전남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1/3을 넘어섰다.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1인 가구라는 얘기도.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1인 가구 현황과 소비지출 영향 분석’을 보면 지역 1인 가구의 암울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광주 36.5%(22만9000가구), 전남 37.1%(29만5000가구)로 전국 평균(35.5%)을 웃돈다. 오는 2050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광주 40.3%(24만1000가구), 전남 42.0%(32만6000가구)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상당 수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데 있다.

광주 1인가구주 월평균 소득은 128만3000원으로 다인가구주(206만3000원)의 62.2%에 불과하고 다른 광역시 1인 가구주(150만5000원)의 80%수준이다.

전남도도 1인 가구주 월평균 소득(103만9000원)은 다인가구주(158만6000원)의 65.5%, 다른 광역도 1인 가구주(140만4000원)의 75%수준으로 열악하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비중도 1인 가구(광주 50.2%, 전남 27.2%)는 다인가구주(광주 56.6%, 전남 32%)보다 낮다. 대신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근로자 비중(광주 31.5%, 전남 31.5%)은 다인가구주(광주 11.7%, 전남 14.7%)보다 높다.

주거도 불안정했다. 자가비중(광주 35.7%, 전남 58%)이 다인가구(광주 73.3%, 전남 77.8%)에 비해 크게 낮고 월세비중(광주 47.4%, 전남 25.2%)은 다인가구(광주 14.3%, 전남 9.8%)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비 지출에서도 1인 가구는 식비(32.1%)와 주거비(18.1%)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예전 광주는 대학생·취업준비생, 전남은 사별한 노인 등으로 대변되는 등 불안정한 형태였지만 이제는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됐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원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공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 울 지 사 06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